

21세기 한국어 음운론의 과제

The main task of Korean phonology in the 21st century

배주채*

가톨릭대학교*

cukbjc@catholic.ac.kr*

1. 머리말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 이제까지 한국어 음운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의미도 있고 가능하기도 하다.

음운론은 20세기 현대언어학의 출발점이었다. 그 후 언어학의 다른 분야들의 발전에 따라 음운론은 상대적으로 쇠퇴해 온 듯 보인다. 한국어 음운론도 언어학계의 동향과 유사하게 최근으로 올수록 한국어학 내에서의 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아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음운론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 한국어 음운론의 역사

1) 15세기 한국어 음운론

한국어 음운론은 일반언어학에서의 음운론보다 훨씬 이른 1440년대에 한글 창제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표음문자를 제작하고 한글 표기법을 확립하는 학문적 기반으로서 한국어 음운론이 탄생하게 되었다.

15세기 한국어 음운론은 중국에서 들여온 성운학을 발전시킨 것이었다. 그런데 성운학은 중국어 음성(즉 중국 한자음)만을 기술할 뿐이고 다른 언어의 음성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음운론은 아니었다. 그리고 음성과 문자를 관련짓는 이론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래서 연구자

들은¹⁾ 한국어 음성에도 적용되는 일반음운론 성격의 내용은 성운학으로부터 받아들이고, 한국어 음성에 특수한 사항들은 독자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함으로서 한국어 음운론을 전개했다. 그리고 음성과 문자를 관련지어 표음문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성리학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여 독창적인 문자론을 개발하게 되었다.

15세기 연구자들이 한국어 음운론의 성과를 현대의 연구자들처럼 명시적인 모습으로 남기지지는 않았다. 그들의 목적이 음운론의 발전에 있지 않고 문자의 제작 및 표기법의 확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연구 성과인 문자와 표기법에 대해 이론적으로 해설한 『훈민정음해례』(1446)가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서 15세기 한국어 음운론의 실체를 상당 부분 복원할 수 있다.²⁾

2) 20세기 한국어 음운론

15세기 한국어 음운론은 후대 학자들에게 계승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묻혀 있었다. 18세기 이후 실학자들의 한국어 관찰도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훈민정음해례』가 일찌감치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세기 말에 한국어 음운론은 서양의 언어학을 받아들여 거의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한국어 음운론의 첫 번째 과제는 한국어 표기의 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서양의 전통문법과 음성학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음성 부문을 기술해 나가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이라는 표기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³⁾ 한글 표기법의 제정은 20

1) 이 연구자들은 세종과 집현전의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세종이 선도적인 연구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자들을 훈민정음학파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2) 15세기 한국어음운론을 현대언어학적으로 복원한 예는 이승재(1991), 강창석(1992) 등에서 볼 수 있다.

3) 음성 부문은 문자 부문, 어휘 부문, 문법 부문 등과 대등한 언어 부문이다. 음성 부문을 연구하는 분

세기 초 한국어 음운론이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다.

20세기 후반은 한국어 음운론이 정밀과학에 가까운 반듯한 학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시기이다. 이론적으로는 서양에서 도입한 구조주의 음운론과 생성 음운론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에 맞는 논리를 찾아내고, 자료 면에서는 현대 이전의 한국어와 여러 방언들로 기술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로써 20세기 말에는 한국어의 음성 부문 기술이 대체로 완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제정된 「표준 발음법」(1988)은 발음의 정비에 기여했다.

3) 21세기 초 한국어음운론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어 음운론은 완숙기를 맞이한 동시에 전환기에 들어섰다. 현대한국어의 음성 부문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완숙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현대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음운론 개론서가 다수 출간된 사실이다. 이러한 음운론 개론서 출간 열풍은 1990년대에 시작되어 이 시기에 정점에 이르렀다.⁴⁾ 따라서 지난 30여 년간은 한국어음운론 개론서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로써 구조주의 음운론과 생성 음운론에 기반한 현대한국어 음성 부문의 기술은 거의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음운론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 되었다.

이 시기의 한국어 음운론이 전환기에 들어서게 된 것은 위와 같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튼튼한 성벽에 둘러싸인 연구자들은 시야를 확대하여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들에서 음운론의 활로를 찾기 시작했다.

야가 음성학과 음운론이다.

4) 개정판을 따로 셈할 때, 한국어 음운론 개론서는 1990년대 9종, 2000년대 14종, 2010년대 16종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한국어 음운론의 비중에 비추어 한국어학의 다른 분야의 개론서 종수와 비교할 때 매우 많은 숫자이다.

- 대조언어학, 언어유형론
- 언어접촉론
- 외국어습득론, 외국어교육학
- 언어치료학, 언어공학

이 가운데 대조언어학에서의 음운론, 즉 대조음운론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대조음운론은 두 언어의 음성적 차이를 밝히는 연구 분야이다. 대조음운론은 대조음성학과 직접 관련되고, 언어유형론, 언어접촉론, 외국어습득론, 외국어교육학과도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어 학습자의 급격한 증가로 외국어교육학으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이 발달한 것은 한국어 대조음운론 활성화의 주된 요인이었다. 즉 대조음운론은 효과적인 한국어 발음 교육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컸으며, 또한 이 시기에 부쩍 늘어난,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로서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쉬운 주제였던 것이다.

21세기 초 한국어 음운론의 경향은 두 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다.

- 현대한국어 음성 부문 기술의 완성 - 한국어 음운론의 완숙
- 한국어 대조음운론의 성장 - 한국어 음운론의 전환

요약하자면 완숙기에 접어든 한국어 음운론이 대조음운론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3. 대조음운론

1) 한국어 대조음운론의 역사

15세기 한국어 음운론의 출발은 사실상 대조음운론적 인식에서 비롯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어와 중국어의 음성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할 수밖에 없는 언어적 상황으로 제시한 “나랏 말싸미 中國에 달아(國之語音 異乎中國)”는 한국어 음성과 중국어 음성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⁵⁾

대조음운론적 인식은 다음과 같이 현대에 와서도 줄곧 있어 왔다.

- 19세기 말 이후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대조음운론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 20세기 전반에 한국인들이 외래어표기법과 로마자표기법을 연구하면서 대조음운론적 인식이 발달했다.
- 20세기 후반에 한국인들이 외국어학을 접하면서 대조음운론 연구가 싹트기 시작했다.
- 21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어와 외국어의 접촉의 증가 및 한국어교육의 확대로 대조음운론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2) 한국어 대조음운론의 현황과 문제

21세기 초 한국어 대조음운론의 연구 결과는 주로 다음 세 가지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학위논문은 대부분 한국의 대학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학술지
- 학위논문

5) 한글 창제 직후에 이루어진 『동국정운』(1448)의 편찬은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또 중국어에서의 치두음과 정치음의 차이가 한국어에서는 없음을 인식하고 한국어를 표기하는 치음자 제작에서 이 두 음성을 구별하지 않은 것은 대조음운론적 인식이 철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단행본⁶⁾

대조음운론 연구 결과의 양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하면 질의 면에서 문제가 적지 않다. 한마디로 연구는 많으나 연구 성과가 집적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기존 연구 결과의 점검이 부족한 상태에서 맹목적 연구, 표피적 연구, 반복적 연구를 양산하는 데 있다.

대조음운론을 포함한 대조언어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대조언어학 연구는 연구 대상인 언어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자료의 정확성)
- 대조언어학 연구는 일반언어학 및 개별언어학의 관점에서 정밀해야 한다.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대조음운론 연구는 음성학적으로도 음운론적으로도 정밀해야 한다. 음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론의 적절성)
-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종합해 체계를 세워 나가야 한다. (학문의 성장)
- 한국어교육, 외국어교육, 언어 접촉 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 (연구 성과의 활용)

지금까지의 대조음운론 연구는 특히 앞의 세 조건에 충실하지 못한 채 연구 결과를 양산해 온 것으로 보인다.

6) 한국어 대조음운론을 포함한 대표적인 단행본 몇 개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황찬호 · 이계순 · 장석진 · 이길록(1988) 『한일어 대조 분석』, 명지출판사.
- 박창원 · 오미영 · 오은진(2004) 『한 · 영 · 일 음운 대비』, 한국문화사.
- 유타니 유키토시 저 · 김옥순 역(2010) 『한일대조언어학』, 제이앤씨.
- 허용 · 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소통.

3) 한국어 음운론과 다른 언어 음운론의 교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조언어학 연구는 연구 대상인 언어 자료가 정확해야 한다. 그러려면 연구자가 대조하는 모든 언어에 정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를 대조하는 연구자는 두 언어를 모두 잘 알아야 하며 한국어학의 연구 성과와 영어학의 연구 성과를 두루 알아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조언어학 연구 결과들에서 의아한 느낌을 자주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어떤 두 언어를 대상으로 한 대조언어학이 발전하려면 각 언어에 대한 개별언어학의 성과가 통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영 대조언어학의 발전은 한국어학과 영어학의 성과가 통합된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한국어를 기준으로 두 언어를 대조하는 작업과 영어를 기준으로 두 언어를 대조하는 작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영 대조언어학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조언어학 연구자들은 주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 편향되어 온 듯하다.

대조언어학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대조음운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어 대조음운론은 한국어 음운론과 다른 언어 음운론의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4. 대조음성론

1) 음성학적 대조의 중요성

음운론적 관점에서, 두 가지 폐쇄음을 가진 언어는 대부분 무성평음(/p, t, k/)과 유성평음(/b, d, g/)을 가지며, 무성유기음(/p^h, t^h, k^h/)을 가진 언어는 16%에 불과하다(허용·김선정 2013:101). 영어와 일본어는 무성평음과 유성평음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유형이고 중국어는 무성평음과 무성유기음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유형이다. 이 사실을 외국어 학습에 적용하여 영어 원어민과 일본어 원어민에게 중국어 무성유기음 학습의 난도가 똑같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다르다.

음성학적 관점에서, 영어에는 무성유기음([p^h, t^h, k^h])이 무성평음의 변이음으로 존재하고 일본어에는 무성유기음이 변이음으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국어 무성유기음 학습의 난이도는 영어 원어민보다 일본어 원어민에게 더 높다. 따라서 변이음의 음가를 무시하고 음소의 기본변이음(즉 빗금 안에 음소로 제시한 음성기호)만을 가지고 대조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외국어 학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용(2019:각주 8)의 다음 지적도 같은 문제에 대한 것이다.

- 대부분의 언어에는 한국어의 평음에 해당하는 /p t k/와 같은 소리들이 있어 이 소리들을 제일 배우기 쉬운 것으로 예측하게 되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IPA(국제음성부호)에 기대어 나타내는 이 표기는 추상적인 음소상의 표기일 뿐이고, 음성적인 면에서의 그 실제 소리는 언어에 따라 우리말의 경음에 가까울 수도 있고, 유기음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조주의 언어학이 갖는 한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개별언어학의 관례에 따른 음성 표기가 국제음성기호의 용법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다는 점도 정밀한 음성학적 대조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AET어족의 음성 기술에서 [p, t, k]는 유기음을, [b, d, g]는 무기음을 나타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진호(2018:15-16)의 언급이 참고가 된다.

2) 음운론적 대조의 중요성

한국어 원어민에게 /ㅂ/의 변이음들 [p], [b], [p̚]는 모두 동일한 음소로 받아들이지만, 영어 원어민에게 '납 [nap̚]'의 불파음 [p̚]는 음소 /p/로, '나비 [nabi]'의 유성음 [b]는 음소 /b/로 느

끼기 쉽다. 그런데 영어 음소 /p/는 초성 위치에서 [p] 또는 [pʰ]로 발음되므로 '납'에 조사 '이'를 붙인 '납이'를 영어 원어민은 [nabi]가 아닌 [napi] 또는 [napʰi]로 발음할 가능성이 높다.

영어 원어민은 한국어의 불파음 [p̚]가 모음과 모음 사이의 [b]와 동일한 음소 /ㅂ/에 속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면 한국어 /ㅂ/을 음성 환경에 따라 영어의 /p/와 대응시켰다가(/납/) /b/와 대응시켰다가(/나비/) 하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국어 음성들의 상호 관계를 음성학적으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만 음운론적 관점에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3) 대조음운론과 대조음성학의 통합

대조음운론과 대조음성학을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연구 분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연구 분야를 대조음성론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 대조음운론과 대조음성학의 통합 - 대조음성론

언어학 전체에서도 음성학과 음운론은 음성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보다 공통성이 크다. 이 둘을 음성론이라는 하나의 연구 분야로 묶고 세부 주제나 관점에 따라 음성학과 음운론으로 다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음운론과 음성학의 통합 - 음성론

5. 마무리

이상의 논의를 통해, 21세기에 한국어 음운론이 나아갈 방향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대조음성

론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이루어진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를 향해 통합되어 왔다. 특히 20세기 말의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정보의 유통량이 크게 늘어나고 유통속도도 놀랄 만큼 빨라졌다. 그 과정에서 언어와 언어의 접촉은 더 빈번해지고 한국어 음성과 외국어 음성도 수시로 마주친다.

언어 간의 음성의 교류 양상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연구는 대조음성론이 맡게 된다. 대조음성론의 연구 성과를 중심에 놓고 언어유형론, 언어접촉론, 외국어습득론, 외국어교육학 등의 분야가 협력할 때 음성의 교류 양상을 전면적으로 밝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이론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재(1991), 훈민정음의 언어학적 이해, 『언어』 16권 1호, 한국언어학회.
- 이진호(2018), 국어 음운론의 유형론적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학연구』 51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 허용(2019), 한국어교육을 위한 대조언어학의 회고와 전망, 『언어와 문화』 15권 1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허용·김선정(2013), 『대조언어학』, 제이앤씨.